# 李 賢 輔

농암 이현보(李賢輔 : 1467 1555)

조선 전기의 문신, 강호문학의 선구자이며 <어부가> <농암가> 등으로 영남지방의 시가문학을 창도함.



＊＊＊ 농암 이현보는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뒤 고향으로 돌아가서 <농암가(聾巖歌)> <어부가(漁父歌)> 같은 국문시가를 창작하거나 개작하여 영남가단을 창시한 인물이다. 그는 연산군 때 과거에 급제하여 연산군 - 중종 - 인종 - 명종 등 4대를 섬기면서 무려 44년(32세에서 76세까지) 간이나 벼슬아치로 봉직하였다. 이 기간 동안 주로 외직을 자청하여 아홉 고을의 수령과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는데 치적이 우수하여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으며, 청렴결백하여 청백리로 선발되기도 하였다.

＊＊＊ 농암은 외직을 역임하는 동안 향토에 기반을 둔 사대부 계층의 향촌자치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고을을 다스렸는데, 벼슬에서 은퇴한 뒤에는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처사적(處士的) 삶의 방식

을 개발해 내는데 몰두하여, 후배인 이황이나 이황의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. 특히 강호생활(江湖生活)의 풍류(風流)를 즐기는데는 읊기만 하는 한시보다도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국문시가가 더 유용하다는 사실을 체득하고, 스스로 <효빈가(效嚬歌)> <농암가> <생일가> 같은 단가(당시는 아직 시조창이 나오기 이전이므로 시조라는 명칭이 없었음)를 짓기도 하였다.

＊＊＊ 농암은 83세 때 잊혀져 가던 「어부가」(12장)를 재발견하여 이를 개작하였는데, 이현보에 의하여 개작된 <어부가>(9장)는 흔히 농암 <어부가>로 불리며 조선후기의 한국문화(문학과 음악)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. 원래 중국의 악부시(노래로 부를 수 있는 시)인 사(詞)에서 유래한 기존의 <어부가>(12장)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사(詞)와 함께 사라져 가고 있었는데 이현보는 이를 재발견하고 다듬어 놓음으로써 <어부가>가 우리나라 노래인 장가(당시에는 가사를 장가, 시조를 단가라고 불렀다)로 재창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.

＊＊＊ 농암의 이 <어부가>는 뒷날 궁중의 무용극인 정재(呈才)에서부터 민간의 뱃노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불려졌고 조선 말엽에는 십이가사(십이잡가라고도 함)의 하나인 <어부가(일명 어부사)>로 정착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요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.

＊＊＊ 농암은 또 기존의 어부단가 10장을 5장으로 개작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그에 의하여 다듬어진 <어부가>(<어부단가>와 구별하기 위하여 <어부장가>라고 부르기도 함)와 <어부단가>는 윤선도의 <어부사시사(漁父四時詞)> 이중경(李重慶)의 <오대어부가(梧臺漁父歌)>, 이형상(李衡祥)의 <창부사(唱父詞)> 이한진(李漢鎭)의 <속어부사(續漁父詞)> 신재효(申在孝)의 <어부사> 같은 작품의 창작에 직·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서 조선후기 문학사에서 <어부가>라는 하나의 작품 계열을 형성하기도 하였다.

＊＊＊ 농암의 작품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의 국문시가 작품들이 영남의 후배들에게 국문시가의 필요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이황에 의하여 <도산십이곡(陶山十二曲)> 창작으로 계승되고, 다시 이황의 제자인 권호문(權好文)의 <독락팔곡(獨樂八曲)>과 <한거십팔곡(閑居十八曲)> 이숙량(李淑樑)의 <분천강호가(汾川江湖歌)>의 창작으로 이어져 내려가면서 국문학사에서 영남가단이라고 불리우는 국문시가 창작의 전통으로 확립되어, 송순 - 정철 - 윤선도로 이어지는 호남가단과 함께 조선 후기 한국문학을 풍성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.

이 글은 우리 원에서 발행하는 「이달의 문화인물」 소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